

사속이의 斯速已矣, 하대내년 何待來年?

▶ 신비와 신성의 숲

숲은 신비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1813~1901)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취해 작곡한 오페라 '맥베드'는 초입에 마녀가 등장하는 숲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나의 교향곡은 곧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 말러. 그가 작곡한 교향곡 3번의 도입부에서 모든 악기는 제각각 소리를 내며 숲과 대지의 울음을 묘사한다. 그리고 3악장에서 숲의 짐승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케스트라가 묘사하는데, 이는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동양사상은 숲속의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물신관을 기본으로 한다. 어린이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치부할 수 없는 미야자키 하야오(1941~)의 작품들 중에 ‘모노노케 히메’(1997) 역시 만화의 형식을 빌려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작곡가 히사이시 조(1950~)의 음악으로 그 숲을 더 신비롭게 영상화한다.

▶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 숲

생각해보면 서양의 현악기와 목관악기들 모두 모두 숲에서 나온다. 영화 ‘레드 바이올린’(1998)이 특정 인물보다는 바이올린의 여정을 통해 음악과 인간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숲과 그 속의 나무는 죽어서 인간에게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다. 숲과 나무가 없다면 인간에게 음악도 울림도 없는 것이다.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지가 되었던 숲은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의 쉼터가 된다. 여름이 가기 전에 숲속에 가보자. 조용한 그곳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걸어보면 아마 오션지에 그릴 수는 없다고 해도 자신만의 악상이 떠오를 것이다. 그곳은 낭만과 신비, 혹은 공포가 가득한 신비한 초록색 시공간이기에.

사람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작전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상대도 자신의 작전을 감추고 나의 작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적시에 작전을 걸면 성공하겠지만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승부수를 던졌다가 실패하곤 한다. 이처럼 적시의 선택은 잘 하기도 어렵지만 선택한 대로 진행하기도 어렵다. 마음이 서더라도 승패를 알 수 없으니 주저하기 마련이다.

맹자는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나라 대부 대영지(戴盈之)는 맹자의 제안이 타당해보이지만 기존의 정책을 당장 폐지하려니 ‘정책의 충격’을 완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대영지는 먼저 세액을 줄이고 1년의 경과 기간을 그친 뒤에 맹자의 제안을 실현하려고 했다.

맹자는 대영지의 의견을 듣고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의 닭을 매일 한 마리씩 훔쳤다.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도둑질은 군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충고를 했다. 도둑은 충고를 듣고서 다음처럼 말했다.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닭 훔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참으로 도둑의 발상은 귀엽기까지 하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만약 자신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어야지 무엇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야 할까요?”(여지기비의如知其非義, 사속이의斯速已矣, 하대내년何待來年?)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서도 결행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시간을 놓치곤 한다. 맹자는 미루고자 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서 당장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